

“김미소 작가의 특별한 3色 만나요”

교동미술관서 내달 4일까지 'SAME SAME'展 진행

“어제와 비슷한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이며 누구와 공존하는가! 또다시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김미소 작가의 'SAME SAME'展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교동미술관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 'SAME SAME'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에너지의 율동,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교

집합 속에서의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을 들여다 보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밝혔다.

평론가 김석준 원광보건대학교 영상예술학 교수에 따르면, 김미소 작가의 작품에는 특별한 3色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삶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색채와 조형들로 표현되는 즉흥적 화려함이다.

이는 마치 쇼팽의 즉흥환상곡(Chopin-

Fantaisie Impromptu, Op.66)을 연상케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롤러코스터의 물결과도 같은 건반 소리처럼, 작품 안에 펼쳐 놓아, 테마에 대한 강렬한 극치를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지 루카스의 영화 '스타워즈'(George Lucas, Star Wars, 1977)를 보는 듯한 활기찬 박진감(活)이다.

정지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조화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감정을, 작품 안에 동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그저 보는 작품이 아닌 깊은 상념으로 이끌어 내는 작품성은 멈출 수 없는 행진을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동요를 가져다줄 것이다.

세 번째, 김미소 작가의 작품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예모(張藝謀 | Zhang Yimou)의 붉은 수수밭(Red Sorghum, 1987)의 영화 속의 대사 속에서 느껴졌던 살아있다는 인간(人間)의 생명력(生命力)이다. 사대의 물결 속에 존재감마저 희미해져 가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살아있음을 지위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간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 미와 삶에 대한 감각을 매일 새롭게 부활시키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임을 느끼게 하는 특별함을 준다.

한편, 김미소 작가는 현재, 메릴랜드 대학교 객원교수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를 수료했다.



김미소 작가의 'SAME SAME'展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교동미술관에서 열린다.

/김재훈기자



전주의 종류와 문화를 담은 예술공간인 동문창창이 오는 4월 4일 개관한다.(사진은 공연 모습)

예술공간 '동문창창' 4월 4일 개관

국악 공연·음악회·산조 축제 등 다양한 예술 활동 제공

전주의 종류와 문화를 담은 예술공간인 동문창창(대표 송봉금)이 오는 4월 4일 개관한다.

동문창창은 ▲관소리 차회 ▲테마가 있는 월간 음악회 ▲계절 음악회 ▲동문창창 클래스 ▲산조 축제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제공한다.

먼저 관소리 차회는 한 모금의 차와 한 대목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소규모 국악 공연으로 10인 이내 절기에 맞춰 진행한다.

월간 음악회는 '이달의 음악'과 함께 다양한 테마가 있는 음악 콘서트로 주말에 이뤄진다. 신진 음악인 발굴과 공연 레퍼토리 개발 등을 도모해 지역 공연 시장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동문창창 계절음악회는 멤버십 회원제와 연계되며, 멤버십 회원 및 동반 1인이 참여할 수 있다. 공연과 연회 음식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로 이뤄지며, 오는 여름과 가을 총 2회 공연한다.

동문창창 클래스는 전통음악 및 다양한 장르의 예술 수업과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장기와 단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단체·기업형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산조 축제는 한옥마을과 동문예술거리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마당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한 한옥과 양옥 등 전체 90평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 분기 및 전체 대관도 가능하며, 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모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관에 맞춰 연간프로그램으로 멤버십도 운영한다. 연간회원은 개관특별회 30인 한정으로, 동문창창 모든 프로그램에 우선 예약자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관소리 차회 10회·월간 음악회 5회·멤버십 데이 2회 프리패스, 클래스 20%·공간 대관료 30% 할인을 제공한다. 송봉금 대표는 “우리 소리와 예술, 따뜻한 네트워크가 이어지는 동문창창을 찾아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문창창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전화와 이메일(010-9026-4344 / dmcc2021@naver.com)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강길선 교수 '세계대항해와 파두의 나라 포르투갈 문명기' 출간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가 두 번째 수필집 '세계대항해와 파두의 나라 포르투갈 문명기'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5년 간 국제 공동연구차 16차례 방문하며 무작정 다녔던 포르투갈의 관련들을 짚어 맞춰 정리한 것이다. 약 20여 도시에 포르투갈의 역사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인 알케부르크, 마젤란, 풀립부스 등의 세계일주와 세계의 패권이 스페인 영국으로 넘어가는 정치사적인 이야기들을 공학자의 눈으로 그려냈다.

특히 이 책에는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38선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 싸움의 산물인 도르테시아스 조약으로부터 시작됐고, 아프리카 국경과 미국 각주의 국경이 두부모자르 듯이 그려졌다. 빵, 조끼, 땀띠라, 물뿌리개 조로, 물마시는 컵 고뿌, 딱딱한 갑배, 파티마 등은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팔아먹은 초췌한 임진왜란의 참극이 되었다. 1892년 대한제국신보를 창간한 베렐과



에비슨은 엔히크 왕자의 템플기사단에서 파생한 비밀결사대 프리메이슨이 되어 대한독립운동을 하였다. 우리나라 곳곳에 포르투

갈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맞는 국운운성을 쇠라시키지 않고 어떻게 후손에 물려줄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

강길선 교수는 “이 책을 끝까지 읽어 보면 대한민국이 지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원한다면 원래 우리의 국경을 되찾을 수 있을까의 답을 찾을 수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의 장래를 짚어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품게 해 주는 것이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교수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여의도 고등학교, 인하공대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생체의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전공 서적 <의료용 고분자>, <재생의학총설시리즈 I, II, III권>, <Handbook of Intelligent Scaffold Biomaterials for Regenerative Medicine, 1st & 2nd Ed> 외 20여 권, 700여 편 논문, 100여 권 총설, 80여 권 특허, 신문컬럼 다수 및 수필집 <해월리의 별과 꿈>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판소리댄스컬 출연 배우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2021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과 함께할 역량있는 출연 배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는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 12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recruit@j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1년 이상 공연 활동 경력자(연 2회 이상)로서 총 19명을 선발한다. 심사는 1차 서류전형(적격 여부)과 2차 실기 오디션으로 이뤄지며, 오는 4월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실기 오디션에서 소리는 자유곡(판소리 5바탕 중), 무용은 창작무를 심사하고, 공통으로 특기(타악, 연기, 무용 등 자유 선택) 및 태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몽연-서동의 꽃'은 삼국 시대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 공주의 서동요를 바탕으로 만든 판소리댄스컬이며, 7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수~토 주 4회,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연간 70회 공연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